

#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달마다 작은 이야기모임 { 작은 워크북 }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뮈리엘 루케이저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작은 이야기모임이 열립니다.”



머리말

# **이 워크북을 만든 민우회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2016년 10월의 <검은 시위>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거리를 메우고, 당당하게 거리에서 자신의 ‘중절수술 경험’을 발언하는 여성들의 에너지가 서울 도심 한 구석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열기로, 201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의 여성대회는 ‘낙태죄 폐지’를 올해의 5대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 민우회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만나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한 여성의 제안이었습니다.

여성들을 낙인 속에 침묵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낙태죄’를 이용해서 여성을 협박하고, 고발하고, 다시 그 공포로 여성을 침묵하게 하는 지금의 불합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는 판단으로, 즉각 이 모임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회적으로 강요된 침묵을 깨려 합니다**

연간 3~40만 건의 임신중절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연간 3~40만에 달하는 여성들의 경험은 사회적 고통으로서 이야기 되지 못하고 삭제됩니다. 임신중절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의 공백(말할 수도, 들을 수도, 그래서 알 수도 없는)’을 경험하며 살고 있죠.

금지된 경험에 대해, 단순히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선택지만 하나 더 늘어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이 열린다는 공지를 올리자마자, 여성들의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분, 조금씩 이 경험을 털어놓을 때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며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이 모임에 신청한다는 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 위로 받고 싶다는 분들의 사연이 속속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달마다 이 작은 이야기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 **서로 다른 무게로 간직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여성들의 경험은 (삶의 또 다른 많은 경험들처럼,) 그 모양도 결도 무게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의 공포가 지금까지도 선명한 이가 있었는가 하면, 괴로운 기억이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려 수술 당시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이도 있었고, 크게 염려했던 수술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려 황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간단히 끝난다던 수술의 통증과 후유증이 너무 심해 몸고생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은 이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속에, 모두가 공통으로 겪어온 감정의 결 또한 존재했습니다. 내 삶이 나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이탈하려 할 때의 두려움과 막막함, 당장 '내 몸으로 겪게 될' 수술에 대한 공포,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



을 오롯이 (네가 아닌) 내가 겪고, 느껴야 한다는 중압감, ‘여성들이 낙태를 너무 쉽게 한다’고, ‘낙태죄가 사라지면 더 쉽게 낙태할 것’이라는 세간의 곡해에 대한 격노까지.

## **이것은 이야기의 연대: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거야**

이 모임이, 느끼지 않았어도 될 불필요한 감정들을 덜어내는 시간, 오랜 시간 묵혀둔 죄책감을 툭툭 털어내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연대이고,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테니까요.

이야기모임을 찾은 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모임을 시도해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다른 여러 장소(학교,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페미니즘 소모임)에서 이런 모임을 시작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모임이 필요했는데 서울에서만 열리는 게 아쉽다며 연락주신 여러 지역의 여성분들도 계셨고요. (그 중에는 직접 먼 길을 달려와 참여해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모쪼록, 이 작은 워크북이 이야기모임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작은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여성들이 이야기의 연대를, 서로의 용기를 다져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특히, 가장 서툴게 시작했던 첫 번째 모임 참여자 분들이 모임 운영에 있어 애정 어린 의견들(‘이런 것이 아쉬웠어요.’ ‘이 코너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을 많이 주고 가셨어요. 덕분에 이후 모임에서 조금씩 덜 서툰 이야기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작지만 용감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한국인권재단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들려주고 용기 내 참여해주신 여성들, 이야기모임 참여자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2017년 7월  
민우회 여성건강팀

# 차례

머리말 5

## 모임 준비하기

진행자\_사전준비물 등 12

참가자\_사전설문지(온라인) 13

## 모임 진행하기

모임 전체프로그램 18

오프닝영상: 그녀의 어떤 하루 20

모임소개 21

자기소개 22

{1부} 키워드토크 / 해석의 곡선 23

{2부} 질문박스 30

연대의 메시지 쓰기 34

소감나누기 36

부록\_연대의 메시지 39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 63

# 모임 준비하기

## 진행자\_사전준비물 등

{ 모임을 위한 준비물 } 워크북, 필기구, 빈 종이, 다과, 영상재생용 기기(노트북, 넷북 등\_유튜브 재생 가능한 인터넷연결), BGM(너무 침울하거나 비장한, 또 너무 시끄러운 음악은 피하면 좋겠죠.), 키워드를 쓸 종이카드(참여자 3배수), 질문을 쓸 종이카드(참여자 수만큼)

{ 진행자의 역할 } 모임홍보, 온라인 사전설문취합, 장소섭외 및 안내·세팅, 프로그램 및 모임 유의사항 안내, 모임 운영시간 체크 등 (2인 공동 진행이 역할 분담하기에 좋았어요.)

{ 모임장소 }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왕래가 너무 잦은 카페 같은 공간 보다는 별도의 모임 공간을 확보하면 좋아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민우회에서는 모임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최종 참여자 확정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모임규모 } 4-5인이 적당했어요.

# 모임 준비하기

## 참가자\_사전설문조사(온라인)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가진 분이 참여하는지를  
짐작하여 모임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참가자들에게는 모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  
될 지, 모임 프로그램을 짐작할 수 있는 질  
문들이자, 답변을 작성하며 ‘내가 어떤 이  
야기를 나누고 싶은 지’ 모임 전에 한 번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사전설  
문조사입니다.

**진행팁.** 민우회의 경우 참여 신청 온라인 구글폼(구글>  
드라이브>구글설문지)을 열어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변  
과 연락처를 미리 받아 모임을 준비했어요. (이 질문들은  
참여신청폼에 포함하여 물어보거나, 참여신청폼과 별도로  
신청자들에게 추가 설문을 열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

**이야기모임에 신청하게 된 { 계기 }  
또는 이 모임에서 어떤 것을  
{ 기대 }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예: 수술한 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서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 위로 받고 싶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답답해서 신청 등)

## Q2.

**여러분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짧은 { 키워드 3가지 }를  
알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모였는지, 미리 적어 보내주신 이 키워드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 나가볼까 합니다. 키워드는 짧은 단어도 좋고, 짧은 문장도 좋아요.

### **Q3.**

**함께 모인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거나, 같이 얘기나눠보길 바라는 점이 있나요? 질문의 형태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술 정보는 어떻게 검색하셨나요? 수술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나요? 헤쳐나가기 힘들었던 상황이나 조건이 있었나요? 의외로 괜찮았던 시간이 있나요? 당시에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지금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 모임 진행하기

“말하고 듣는 것의 힘”을 믿는  
여성들이 모여,

용기 내 말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서로가 되기 위한 모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봐요.

#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달마다 작은 이야기모임 { 전체 프로그램 } (약 3시간 소요)



## 모임시작

자기소개  
모임소개  
영상상영  
(10-15분)

## 1부

키워드 토크  
또는  
해석의 곡선  
(110분)



## **2부**

질문박스  
(40분)



## **마무리**

연대의 편지쓰기  
소감나누기  
(15-20분)

# 오프닝영상

## <그녀의 어떤 하루>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격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녀의 어떤 하루 (2011, 민우회 제작)



진행팁. Youtube에서 ‘그녀의 어떤 하루’를 검색하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영상을 보기 위한 기기가 준비  
되면 좋겠죠? 여의치 않다면 아쉬운 대로 핸드폰으로 함  
께 볼 수도 있어요. (6분 18초)

# 진행자\_모임소개.

## 이 모임은요

{ 작은 } 이야기모임을 지향합니다  
모두가 충분히 말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소규모로 진행합니다.

{ 페미니즘 } 안에서 임신중절을 말하기  
불필요한 죄책감과 감정을 덜어내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여성들의 말하기와 경청이  
지닌 힘을 믿어요.

{ 안전한 } 이야기모임, 함께 만들어요  
모임에서 들은 다른 참가자의 이야기를 SNS  
나 모임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이야기 보안 유지에 모두 함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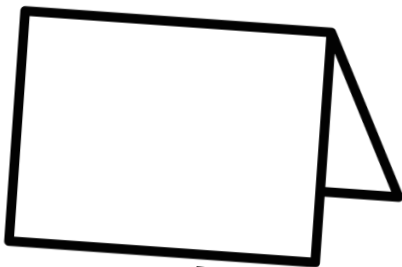
{ 경험의 결 } 은 다를 수 있어요  
크나큰 죄책감이 늘 짐스러운 사람, 죄책감이  
들지 않는 사람, 죄책감이 들지 않는 것에 대  
한 죄책감을 가진 사람 등, 모두 다른 경험의  
결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결의 이야기를 지  
닌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기로 해요.

진행팁. 진행자가 참여자들에게 이 모임에 대해 소개합  
니다. 이 부분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모임의 약속'이기  
도 하니, 모두 함께 숙지하고 시작해요.

# 참가자\_자기소개.

##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모임에서 불리고 싶은 이름이나 별칭을 알려주세요.



적어보세요!

**진행팁.** 페미니즘 안에서 별칭을 쓰는 문화가 있어요.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린다’는 이유 외에도, 이름 뒤에 붙는 00언니, 00씨 등의 ‘위계적 호칭’을 없앴으로써 보다 수평적인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진행팁.** 종이를 접어 손쉽게 작은 명찰을 만들 수 있어요! 참여하게 된 계기를 짧게 소개하며 짧은 자기소개 시간을 가집니다.

# { 1부. 키워드 토크 }

## 나의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진행팁.** 민우회의 이야기모임에는, 매달 **이야기손님**(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마다 진행한 모임에서, 이전달 모임 참여자 중 1분을 이야기손님으로 모셨어요. 머쓱하고 어색한 모임의 시작, 이야기손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키워드를 소개하고 용감하게 시작해준 이야기로 본격 솔직용감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밀**

**재미로  
콘돔  
빼지마**

**공포**

**병원의  
불친절**

**거짓말**

**배신감**

**기록**

**페미니즘**

**부끄럽지  
않아**

진행팁. 참가자들의 키워드를 미리 받아서, 모든 키워드를 종이카드에 적어 책상에 늘어놓아 보아요. 서로의 키워드를 보며 떠오른 자기 경험이나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24



**겨울방학**

**성교육의  
부재**

**선택**

**남자친구**

**당연한  
권리**

**콘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

**폭력**

**시간**

진행팁. 한 사람의 키워드 토크가 끝나면, 그 사람이 늘어  
놓은 키워드 중에 ‘궁금한 키워드 카드 하나’를 고르고, 그  
키워드의 주인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세요.

## { 1부②. 해석의 곡선 : 감정의 그래프 그리기 }

우리의 감정과 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특정 사건들을 만나면서 변하게 마련이죠. 나의 종결 경험은 어떤 변화의 곡선이 있었는지, 그래프로 그려보며 내 경험을 정리해보아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감정(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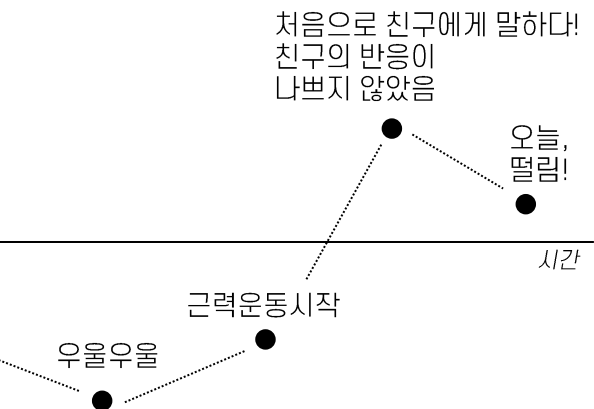
임신사실  
알게 됨

수술 당시  
: 병원 찾기  
어려움

수술 후  
남자와  
헤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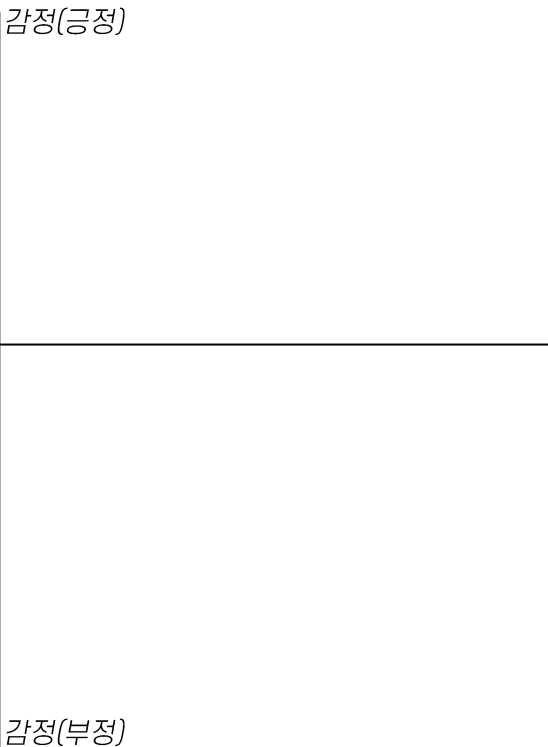
감정(부정)

**진행팁.** 참여자들이 본격 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프로그램입니다. ‘키워드 토크’와 ‘해석의 곡선’ 중 하나로 모임을 시작해보아요.



# 해석의 곡선 : 감정의 그래프 그리기

감정(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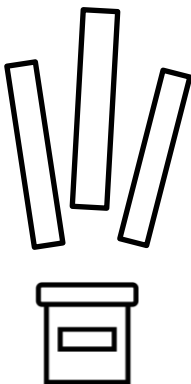
감정(부정)

지면이 좁다면, 조금 더 큰 종이에 그려도 좋아요!

---

시간

## { 2부. 질문박스 }



**진행팁.** 참여자 분들이 적은 질문을 미리 질문박스에 넣어두었다가, 돌아가며 질문을 하나씩 뽑아보아요. 해당 질문에 대해 답하고 싶거나,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답을 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도 좋아요.

## { 2부. 질문박스 }

저는... 그냥 아무 길가다가 산부인과 들어가서 그냥 물어봤어요.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딱 처음 들어간 데가 딱 한다고 그래서. 그냥 걱정도 없이 들어갔다가... 근데 병원에서 그런 일이 되게 많으셨나봐요. “제가 좀.. 원치 않는..” 이랬는데 바로 아시는 거예요. “‘낙태’하러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다 인터넷에서 얻었어요. 그리고 막 ‘미혼 전문 산부인과’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체인점처럼 수도권에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면 대부분 수술을 다 해요. ‘미혼 전문’이라는 게 임신중절수술을 해준다는 그런 거 같아요.

**Q. 수술관련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 { 2부. 질문박스 }

똑같이 두렵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막 훨씬 더 내 자신에 대해 관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아요. 피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임신 가능성에 대한 트라우마,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거에 대해 두려워하고 막 조금만 생리가 늦어져도 막, 불안한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경구피임약을 제대로 제 때 먹어도 생리가 나오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거. 속상한 거, 그때 이 경험을 안 했으면 덜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저 근데 경험하게 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절대 창피해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의 생각은.

### Q. 수술에 대한 현재의 생각?





## { 2부. 질문박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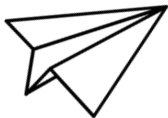
공감할 수 있게 된 거. 그.. 학교에서 임신중절 수술하는 걸 찬반토론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개네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이제 남자들이나, 수술경험이 없어 보이는 여자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만 말을 하니깐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 난 경험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론이 아닌 삶으로 다가오게 된 게, 저한테는 그래도 소중한 그런 경험인 거 같아요. 더 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게 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겪는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고 정보라도, 조금이라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Q. 의외로 ‘괜찮았던’  
시간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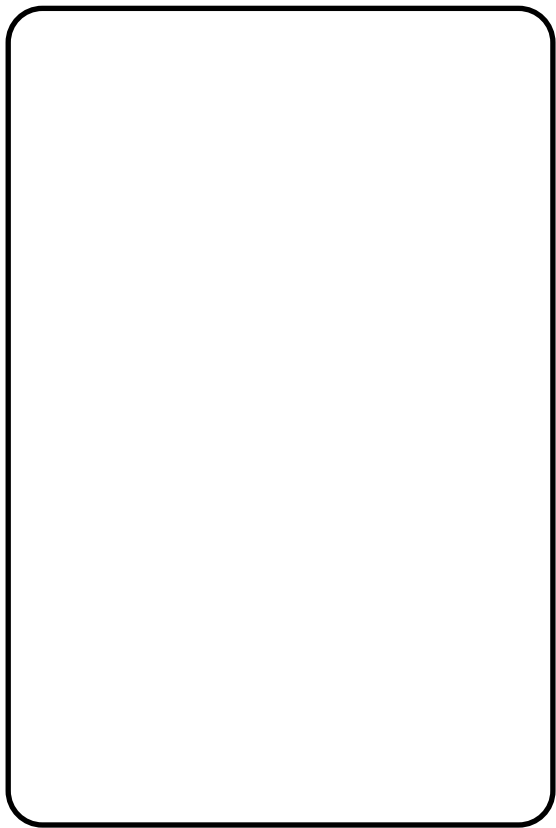
## 연대의 메시지\_써보아요

다음 모임에 참여할 참여자 또는 임신중절을 경험한 또 다른 여성들, 혹은 과거의 나 자신에게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를 남겨 보아요.



**진행팁.** 달마다 열린 민우회 이야기모임에서는 이 편지를 다음달 참여자에게 전달했어요. 그렇게 매달 쌓인 <연대의 메시지> 전문을 부록(39쪽)으로 실었습니다.  
**진행팁.** BGM이 함께라면 더 좋을 거예요 : )

## 연대의 메시지\_써보아요



# 소감나누기

오늘 모임 어떠셨나요?

짧은 소감을 나누고 마무리해요.



**진행팁.** 한 번 더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모임 참여자들에게 모임의 진행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구해보아요. 참여자들의 제안과 의견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모임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 소감나누기

“저는 최근에 나를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 같아요.”

“전 오기 전에 좀 무서웠어요. 뭔가, 페미니즘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 내가 말 실수 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다 다르니까요, 경험이… 그리고, 또 뭔가 그냥 좀 많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때 경험이 막 생각나가지고, 좀 찌릿찌릿도 하고 그랬어요.”



# 소감나누기

“저도 오면서 살짝 걱정이 됐던 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야길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풀어야 될 데는 여긴데 다른 곳에 가서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같이 얘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 왜, 같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전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 그 전쟁에서 그랬지 하는. 그게 그 전장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공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같은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병사들의 이야기. 아..그건 위안이 될 수 있구나. 그랬습니다.”



**부록.**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민우회가 만난  
작은 이야기모임 참여자 분들이 작성해주신  
<연대의 메시지> 전문을 공유합니다.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내가 미쳤지. 여러모로 미쳤지.  
그때부터 이곳을 들어오는 계단에서까지  
내가 미쳤지.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잘했다, 다.’  
... 싶어요.

혼자 끄끙 앓고 갖고 있었던 상흔들을 드러내 보이며, 마음이 축 내려앉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무엇을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될지 몰라 이 건물 앞에 와서까지 망설임을 멈추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마음 한 편에 잘 접어두고 갑니다. 어쩌면 평생 아물지 않는 기억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경험들이지만 오늘, 좀 더 용기를 얻어,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따뜻한 맘으로 감쌀 다짐을 하고 가요.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안녕하세요? 첫모임 참가자예요♡

어느 정도 견뎌내셨기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많이 지지합니다!! 각자의 시간 안에서 각자의 감정이 많이 힘드셨을 수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느끼지 않았어도 될 감정에 대한 것을 툭툭 털어버리는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힘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안전한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기세요 >ㅅ<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이 자리까지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웠든, 무거웠든, 친구님! 너무나 잘 오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를 탓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회복(?)했다기보다는 저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이 일로 저는 페미니스트로 눈 뜰 수 있었거든요) 덮어뒀던 감정들을 맞이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나를 알아보려고 시간이 걸렸구나’ 하는 생각도 하구요.

요즘은 용기내지 못했던 검은 시위(낙태죄 폐지)에도 생긴다면 나갈 생각으로 심신수련을 위해 주짓수라는 스포츠를 배우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 지금도 살짝 아쉬운 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지만 친구님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오늘도 힘을 받고 갑니다.

정말 멋지게 잘 쓰고 싶었는데ㅠ 미안하고, 고맙고, 반가워요 친구님♡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보내온  
시간, 경험, 용기에 큰 지지를 보내요.  
같은 경험을 나눈 우리는 열심히 싸  
웠고, 싸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이 자리에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별일이 아니라 했지만, 주변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모르는 새 별일이 되어버렸고 내 인생 최대의 비밀이자 약점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는 일은 낙태가 아닌 섹스, 자위, 연애, 옷차림, 성정체성 그 어느 것에서도 다 일어나더라고요. 남들에게 말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날 바라보는 내가 중요한 거 같아요. 내 몸은 내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요.  
우리 다들 날 사랑해줍시다.

사랑 받고 행복할 가치가 충분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안녕하세요. 우리 어찌다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네요...! 처음에 임신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엄청 펑펑 울었는데 이제는 울지 않게 되었어요. 편지를 읽으시는 분도 지금은 좀 괜찮으신지 아니면 아직 추스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흘러 흘러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온 것 만으로 큰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해요. 바깥의 부정적인 소리들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안의, 정말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고생했어.’만 듣기로 해요♡ 가끔은 정신 놓고 노래 들으며 춤추기도 하고 바깥에서 그냥 누워보기도 하면서 자유로워지자고요! ♡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어쩌면 그 일은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당신  
은 그만큼 강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  
회적 인식’이라 주장하는 몇 명에 불과한  
타인들의 생각, ‘내 생각’으로 느껴지는  
타인들의 생각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죄책감으로부터 당장 자유로워질 수 없  
다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에 대한 죄책감’을 먼저 내려놓는 것은  
어떨지?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임에 나오시기까지 당신이 보낸 시간과 경험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요. 오늘 모임은 어떠셨나요?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같은 경험, 그러나 다른 경험을 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용기를 모아 목소리를 내고 싸워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라도 만나게 되어서요. 스물 한 살 저에게 그 경험은 상처였고 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만 상처 받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저를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상처를 들추어 보는 것으로 저는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위로 받습니다.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당신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았고  
당신이 누웠던 자리에 내가 누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된다는 사  
실이 정말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서 또 너무 고맙기도 합니다.

잘 살아가주어 고맙고, 다시 웃어주어서,  
다시 사랑하고 이야기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연결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든 행복하  
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도.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무슨 말을 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많이 아팠고 아프지만

충분히 아파하고  
다시 삶을 걸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안아주고 싶다는,  
(저를, 그리고 당신과 우리 모두를)  
마음을 여기에 적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두 손 모아 바랍니다.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남은 내가 아니다.  
내가 괜찮다거나  
내가 괜찮지 않다거나  
남이 정의해서는 안 된다.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첫 문장을 쓰기가 너무 힘드네요. 수술할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제 오만이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거든요. 당시에는 페미니즘도 잘 알지 못해서 제 자신을 탓하고 많이 울었어요. 수술을 하겠다는 것에서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고 들어온 비난의 말들이 절 힘들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 얘기를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처음엔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는 그게 제 속에서 나온 마음의 소리가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 일에 대해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모두 사회가 저희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 누구보다도 저희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제 인생의 경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있을 수 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난 후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일 뿐이라고 믿어요! 제 편지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잘해왔듯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힘든 일 간직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같은 일인데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가요.  
이 일을 이겨내는데 하나의 옳은 방  
법만 있는 건 아니네요. 힘내세요!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그 새끼가  
개새끼예요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지금까지 각자 인생을 잘 살아온 것처럼 어떤 경험이었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짚어나가 보아요!

내 몸이고 내 인생이고 내 권리의 실현이었어요.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별 일이 아니지만 별일이죠?  
오셔서 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하고 같이 울었으면, 웃었으면  
좋겠어요. 모임에 참석하는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해요.

별 일 아니에요.  
누군가 별 일이라며 죄책감을 주려고  
한다면 당장 떨어지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정신건강!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그 일은 전혀 슬픈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죄책감도, 슬픔도,  
부끄러움도 가질 필요 없어요!

상처는 사소하지 않지만  
그 일로 인해 당신이 더 성숙한 사람  
이 됐어요! 당당해도 좋아요!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

세상에 완벽한 피임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오늘 모임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어젯밤에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모두 각자의 이야기들 내려놓으면서 다같이 웃기도 하고, 다같이 조금 울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처음 누군가에게서 (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야만 했던)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을 때, 그 사람이 보인 반응들이, 내가 가진 감정들(괜찮음, 안 괜찮음, 죄책감, 아무렇지 않음, 분노 등등)을 차곡차곡 만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반응, 들어주기, 경청이 참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걸음해주신 당신의 용기에 큰 응원과 지지를 보내요! 어떤 무게로 당신이 그 경험을 갖고 있었든, 불필요한 무게는 조금 더 덜어내는 시간, 그리고 필요한 힘과 용기를 많이 담아가는 시간, 시작이길 바랄게요♡

## { 연대의 메시지 } 편지왔어요 -✉-

그 때 그 일에 묶여있지 않길 바랍니다.  
흘려 보내고 다시 또 맞이해도 돼요.  
죄책감이나 후회나 순간 순간 나를 힘들  
게 하는 것들을 늘, 시시때때로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떠오를 땐 충분히 기억하고

(...까지 쓰다가 막차 시간이 되어 가시는 바람에  
이 편지는 마무리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연대하고 있고,**

**우리는  
연결될수록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연대하고 있고,**

**우리는  
연결될수록 더  
강해질 거예요.**

#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

## { 책 }

한국여성민우회, <있잖아 나 낙태했어>, 다른, 2013. (서점에서 구입 가능)

한국여성민우회, <혹시, 산부인과 가봤어?>, 2012. (미발간 소책자\_민우회 홈페이지 문의)

## { 영상 }

다큐, <자 이제 댄스타임> (2013)

다큐, <파도 위의 여성들> (2014)

다큐, <섹스, 설교, 그리고 정치> (2016)

영화, <더 월1> (1996)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3일> (2007)

영화, <그랜마> (2015)

## { 팟캐스트 }

한국여성민우회 팟캐스트, <거침 없는 해장상담소>, 33화 ‘낙태죄의 죄를 묻다’ (2016.10.23 방송)

(팟빵 홈페이지 또는 어플, 팟캐스트 어플에서 ‘해장상담소’를 검색하세요.)

#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태어나 세상의 색깔들이 다채롭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두근두근한 가능성을 봅니다.

또한 서로 다른 것들이 각자 존엄성을 지키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 후원안내

국민 813-25-0011-869(한국여성민우회)  
#2540-3838(문자후원 건당 3천원)

## 회원가입안내

02-737-5763

h. [womenlink.or.kr](http://womenlink.or.kr)

t. womenlink f. womenlink1987



발행처\_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_김민문정, 강혜란  
발행일\_2017년 7월  
기획\_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노새, 제이, 윤소, 이편)  
문의\_02.737.5763  
womensbody@womenlink.or.kr  
(여성건강팀)

#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달마다 작은 이야기모임 { 작은 워크북 }

